



보도 일시	2023. 2. 26.(일) 12:00	배포 일시	2023. 2. 26. (일) 10:0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 <총괄>	국제금융국	책임자	과장 곽소희 (044-215-4810)
	다자금융과	담당자	사무관 홍석찬 (hsc1006@korea.kr)

추경호 부총리, G20 재무장관·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및 주요국 재무장관 면담 결과

- 세계경제 회복·국제금융체제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(G20) -
- 우리기업 피해 최소화(美·EU), 공급망 협력(호주), G20 공조(인도) -

-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.24(금)~2.25(토), 인도 벵갈루루(Bengaluru)에서 열린 '23년도 제1차 주요 20개국(G20) 재무장관·중앙은행총재 회의'에 참석하였다.
- 아울러, 미국·유럽연합(EU)·호주·인도 재무장관과 양자면담을 실시하였다.

1. G20 재무장관·중앙은행총재 회의

- 추 부총리는 2.24(금)~25(토) 이틀간 열린 '23년 제1차 G20 재무장관·중앙은행총재 회의'에 참석하였다.
- 회의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8개 의제에 대해 논의하였다.
- * ①국제금융체제, ②지속가능금융, ③인프라(이상 세션1, 1일차), ④금융부문, ⑤금융포용(이상 세션2, 1일차), ⑥세계경제, ⑦보건, ⑧국제조세(이상 세션3, 2일차)

【 주요 논의결과 】

- ① (세션1: 국제금융체제·지속가능금융·인프라) 첫 번째 세션에서 대부분 회원국은 ①국제금융체제 의제를 중심으로 발언하였다.

○ 먼저, 회원국들은 취약국 채무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G20에서 추진 중인 저소득국 채무재조정*의 신속한 이행과 성과도출을 촉구하였다.

* **Common Framework for Debt Treatment** 부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채무 상환 한시 유예를 넘어, 탕감 및 상환일정 조정 등 제공('20.11월, G20특별장관회의)

○ 아울러, 회원국들은 다자개발은행의 역할을 빈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 등 전지구적 위기 대응으로 확대·개편하는 논의에 지지를 보내고,

- 자본적정성체계(Capital Adequacy Framework) 검토*의 충실한 이행 등 다양한 재원확충 방안과 사업모델 혁신방안을 논의해나가기로 하였다.

* 다자개발은행의 現 신용등급(AAA)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, 대출 규모 확대 방안 모색 → 현재 은행별로 검토결과 도출된 권고사항의 이행방안 마련 중

○ 또한, 회원국들은 ④지속가능금융 의제와 관련하여 기후금융* 활성화가 중요함에 의견을 모으고, 민간재원 참여 활성화를 논의하였다.

* 기업과 사회의 탄소배출 경감을 유도하고, 저탄소 경제 이행에 기여하는 금융회사의 대출·투자 등 금융상품, 선진국의 재원공여 및 국제기구의 개발원조 등을 포괄

○ 또한, ⑥인프라 의제에서는 의장국이 제시한 지속가능·회복력있는 미래 도시 논의를 환영하고, 이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강조하였다.

② (세션2: 금융규제·금융포용) 금융규제와 금융포용에 관한 두 번째 세션은 주로 회원국 중앙은행총재의 발언과 토의로 진행 되었다.

○ ④금융규제 의제에 대해서 회원국들은 가상자산 거래·활용 확대에 따라 통합된 규제체계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제통화기금(IMF) 등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의 거시경제·금융영향을 분석해나가기로 하였다.

○ ⑥금융포용 의제와 관련,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한 디지털 공공 인프라* 활용에 대해 중점 논의해나가기로 하였다.

* Digital Public Infrastructure: 디지털기기, 인터넷망 등 디지털 금융서비스 활용을 위한 인프라

③ (세션3: 세계경제·보건·국제조세) 회원국들은 ⑥세계경제 관련, '23년 세계경제 성장 전망이 다소 개선되었으나 전쟁 관련 불확실성이 계속됨과 함께 세계경제 분절화 등으로 하방 위험이 크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.

* IMF 총재는 세계경제 분절화로 인한 GDP 손실이 0.2~7%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

- 이에 따라, 인플레이션을 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취약계층 중심의 재정정책, 규칙에 기반한 자유무역 체제 회복이 세계경제 성장·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는데 동의했다.
- ⑦ **보건 의제**에서 회원국들은 향후 팬데믹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G20 재무·보건 TF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는데 동의를 표했으며,
 - 의장국이 추진하는 팬데믹 관련 경제 취약성 점검 프레임워크와 국가별 코로나 19 대응 모범사례 공유 작업을 환영했다.
- ⑧ **국제조세 의제**에서는 디지털세 필라1·2 논의 진전을 환영하고 필라1 잔여쟁점의 조속한 마무리와 국가별 필라2 이행 노력을 촉구하였다.

【 추 부총리 발언 주요 내용 】

- (세션1: 국제금융체제·지속가능금융 발언) 추 부총리는 선도발언을 통해 최약국의 연쇄적 위기가 국제금융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①취약국에 대한 적극적 지원과 ②국제금융체제 회복력 제고를 금년도 주요의제로 논의해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.
- 이어서, 추 부총리는 다자개발은행의 역할 개편을 위해 G20에서 모든 방안을 논의해볼 것을 제안함과 동시에, 다자개발은행의 자본적정성체계(CAF) 검토 이행에 관한 G20 로드맵 마련을 당부하였다.
- 또한, 저소득국의 채무재조정 신청 촉진 및 절차의 신속 이행을 계속 추진할 것을 강조하고, 금년 12월 15일로 예정된 16차 IMF 일반검토가 기한내 완료되도록 G20가 정치적 동력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다.
- 추 부총리는 지속가능금융 이슈와 관련, 저소득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'13년 송도에서 출범한 녹색기후기금(Green Climate Fund)의 2차 재원 보충에 관심을 촉구하였다.

※ 세션2(금융규제·금융포용)는 한국은행총재 발언

- (세션3: 세계경제·보건 발언) 추 부총리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, 전쟁과 다자협력 약화 등으로 공급망 교란과 세계경제 블록화가 확대되어 식량·에너지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.

- 이러한 어려움 하에서, 추 부총리는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에서 통합을 기본방향으로 견지하면서 세계경제 분절화를 최소화해야 함을 강조하고, 식량위기 해결에서도 이러한 접근이 기초가 되어야 함을 언급했다.
- 아울러, 추 부총리는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조속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구하였다.
- 보건 의제에서는 팬데믹 대응 역량 보장 측면에서 WHO로부터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지정된 우리나라가 적극적 역할을 이에 부합하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강조했다.

【 평가 및 대응 】

- 이번 회의는 '23년 G20 의장국인 인도 체제하에서 개최된 첫 재무장관 회의로 올해 논의할 주요의제와 방향을 설정하는 의미를 지닌다.
 - 특히, 올해는 ①21세기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개발은행 개혁*, ②취약국 채무부담 완화, ③식량·에너지 위기 영향 및 정책방향, ④기후 변화 대응 등이 중요 의제로 논의**될 것으로 전망된다.
 - * 다자개발은행의 역할을 빈곤감축 뿐 아니라 기후변화 등 위기 대응으로 확대·개편
 - ** '23년 G20 재무장관회의 일정(잠정) : 2차(4.12~13, 미 워싱턴 D.C), 3차(7.24~25, 인도 간디나가르) 4차(10.11~12, 모로코 마라케시)
 - 또한, 주요국간 이견으로 진척이 더뎠던 저소득국 채무재조정 관련 현재 채무재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잠비아·에티오피아·가나에서 채권국간 논의를 진전하기로 합의하는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다.
 - * 다만, 이번 회의의 합의문(코뮤니케)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세계경제 영향 등에 관한 문구 포함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 10월에 이어 채택이 불발, 의장국 요약문 (Chair's Summary)으로 대체
- 정부는 향후 G20 논의를 통해 주요국 재무장관·중앙은행총재와 세계경제 동향과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,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방향과 기후변화, 에너지·식량 위기 등 극복에 적극 공조해 나갈 계획이다.
 - 먼저, '23년 의장국인 인도의 중점 과제인 다자개발은행 역할 개편에 있어 국제금융체제 공동의장국으로서 논의를 주도해 나가고,
 - 취약국 채무부담 완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불안 요인을 완화하고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.

- 식량·에너지 위기 대응, 기후변화와 전환 등 위기 대응의 경우, 글로벌 중견 국가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해 나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의 기회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.

2. 주요 재무장관 면담 결과

- 부총리는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를 계기로 인도·호주·미국·EU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도 양자 면담을 실시하였다.

【 ① 인도 재무장관 면담 】

- “의장국 인도와 G20 의제 협력 강화, 금년 한국-인도 재무장관회의 재개” -

- 먼저, 2.24(금)에는 2023년 G20 의장국인 인도의 니르말라 시타라만 (Nirmala Sitharaman) 재무장관과 면담을 가졌다.
- 추 부총리는 인도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며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 공동 의장국으로 ⁽¹⁾다자개발은행 개혁, ⁽²⁾기후변화 대응 재원 등 올해 의장국의 관심과제 논의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임을 언급했다.
 -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원전, 천연가스 등 비중을 확대하면서 저탄소 경제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했고,
 - 인프라 분야 중점 의제 중 하나인 ‘미래도시’ 논의에 있어 ‘서울’을 우수 사례로 소개할 수 있도록 인도 측의 관심을 당부했다.
 - * 인도 측은 미래도시 논의를 추진하면서, 서울과 런던을 우수 사례로 언급
 - 또, 한-인도 양자 경제협력 심화를 희망하며 한-인도 재무장관회의를 재개해 보다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것을 제안했다.

【 ② 호주 재무장관 면담 】

- “희토류·핵심광물·에너지 등 공급망 협력, IPEF·G20 등 다자경제 공조 강화” -

- 2.25(토)에는 짐 차머스(Jim Chalmers) 호주 재무장관, 재닛 옐런 (Janet Yellen) 미국 재무장관, 파올로 젠틸로니(Paolo Gentiloni) EU 재무장관과 면담을 가졌다.

□ 먼저, 호주 재무장관과 면담에서 추 부총리는 희토류,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호주와의 협력 강화를 희망한다고 언급하고,

○ 한국의 최대 LNG 수입국인 호주가 앞으로도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줄 것도 당부했다.

* LNG 수입국 비중('22): 1위 호주(25%), 2위 카타르(21%), 3위 미국(12%)

□ 이어서, 다자경제에서도 협력 강화를 제안했다.

○ 지난해 출범한 IPEF*에서 공급망 다변화 등 양국 관심 과제가 유사한 만큼 향후 협상에서 양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력을 제안하고

* Indo-Pacific Economic Framework : 인도-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

○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G20 주요이슈에서도 협력해 나가자 하였다.

【 ③ 미국 재무장관 면담 】

- “IRA 관련 우리측 의견 전달, 녹색기후기금(GCF) 2차 재원보충 지원 요청 등 -

□ 이어, 추 부총리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한·미 양국의 양·다자 현안 및 양국간 공급망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.

○ 추 부총리는 인플레이션감축법(IRA)에 대해 그동안 한·미 양국간 이루어진 논의를 높이 평가하며, 작년 12월 美 재무부가 발표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드스('22.12월 발표)를 상기시켰다.

- 추 부총리는 미국이 발표할 핵심광물·배터리 부품 가이드스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계속 관심을 갖고 있으며, 이 가이드스가 한국 기업들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면서, 이 문제에 대한 옐런 장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하였다.

- 양국은 이와 관련된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.

○ 한편, 추 부총리는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기후기금(Green Climate Fund)의 중요성에 대한 양국의 상호합의를 강조하면서, GCF 2차 재원보충*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요청했다.

* GCF 2차 재원보충('24~'27년) 절차 개시('22.7월), '23.10월 공여전략 확정·발표 목표

【 4 EU 재무장관 면담 】

– “우리기업 피해 없도록 EU 기후산업정책 입법 당부 및 자유무역 회복 강조” –

- 한편, 탄소국경조정제도(CBAM)* 입법을 총괄하는 파올로 젠틸로니 (Paolo Gentiloni) EU 재무장관**과 면담에서
 - *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/ ** EU의 경제, 재정, 관세(CBAM) 총괄
 - 추 부총리는 CBAM을 비롯, 탄소중립산업법*·핵심원자재법** 등 최근 EU가 발표한 통상정책의 도입배경·입법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,
 - * Net-zero Industry Act: EU 內 친환경에너지·에너지저장 등 탄소중립 산업에 규제 완화 및 보조금 지급, 자금지원 간소화, 지속적인 기술개발 등
 - ** Critical Raw Material Act: 핵심광물을 EU 내에서 생산·가공·재활용하도록 촉진하고 교역상대국과 협력해 일부 국가의 핵심 광물자원 독점을 극복하는 법안
 - 역외기업에 실질적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전달하고, 법안 구체화 과정에서 우리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당부하였다.
 - 또한, 추 부총리는 CBAM 하위규정 마련 및 탄소중립산업법·핵심원자재법 입법 등 정책 구체화 과정에서 EU 내 논의동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레벨에서 대화를 계속해나갈 것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제금융국 다자금융과	책임자 담당자	과장 곽소희 (044-215-4810) 사무관 홍석찬 (hsc1006@korea.kr)
	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	책임자 담당자	과장 범진완 (044-215-4830) 사무관 박재은 (jaeeunpark92@korea.kr)